

# 한미인, 하나되어 느낌표 찍던 날

## 한미제과제빵전문학원 재학생 작품전

〈취재 / 허미경 jpkjong@mbakery.co.kr〉



- ① 학생들과 교사들이 전시회를 기념하기 위해 데코레이션 케이크와 초콜릿 공예 등 공동작품을 제작했다.
- ② 작품전은 오후 6시부터 전시됐으나 마음 급한 학생들이 오후부터 전시된 작품들을 관람하고 있다.
- ③ 학원을 내 집처럼 생각하고 기술을 연마한 시간들,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한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 앞에 당당히 섰다.
- ④ 한 학생이 전시장을 찾은 부모님께 작품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 ⑤ 지난 몇년간 기능장 실기시험 품목을 시연한 제품이 전시돼 참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12월 7일 한미제과제빵전문학원에서 재학생 작품전이 열렸다. 6개월에서 1년여간에 걸쳐 학원에서 기술을 익힌 학생들의 실력을 뽐내고 한해를 마감하는 자리에 주인 공인 학생들을 비롯해 그동안 이 학원을 거쳐간 많은 선배들과 제과업계 관계자, 그리고 학생들의 가족들이 함께 해 전시된 작품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작품전에는 정규반, 전문반, 위탁반, 데코레이션반, 기술자반 등에서 출품한 다양한 작품 100여점이 전시됐다. 자유로운 주제와 품목으로 구성된 이번 작품전에는 각자의 개성과 실력에 맞게 빵, 쿠키, 데코레이션 케이크 등 기본



품목과 과자공예, 초콜릿공예, 마지팬, 에어브러시 등 다양한 작품이 출품됐다. 또한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 기술인들도 찬조작품을 제공해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행사에 참석한 기술인과 제과업계 관계자들은 어린 학생들의 작품을 살펴보고 한마디씩 칭찬과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위탁반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고등학생들은 수업이 끝나고 기쁜 숨을 몰아쉬며 뒤늦게 행사장에 우르르 몰려들어 전시장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기도 했다.



전시장에 마련된 작품 관람이 끝난 참관객들은 별도로 마련된 연회장에서 작품에 관한 이야기와 제과업계 교육 전반에 관한 담소를 나눴다. 작품을 선보이기까지 긴장의 연속이던 학생들도 아쉬움과 후련함을 함께 하며 식사를 하고 그동안 서로 고생했다며 어깨를 토닥거리기도 했다.

한미학원 측은 "학생들의 창조의를 고취시키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교육 수혜자들이 진지하게 제과업계에 대해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밝혔다. 작품은 참가하지 못한 학생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3일간 전시됐고 발전된 모습을 기억하며 막을 내렸다.

